

회의록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장 회의]

- 일시/장소 : 2022. 9. 2.(금) 14:00~11:50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 참 석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 12명(분과부위원장 1명* 포함)
 - 김주억(기획재정), 오병욱(소통행정), 조규호(시민안전), 이인선(경제산업), 엄양순(건강복지), 손보경(여성가족), 이배원(문화체육관광), 정현숙*(환경), 위고은(교통건설), 송용섭(도시녹지), 임종엽(해양항공), 장선자(IFEZ)
- 배 석 : (시) 예산담당관, 참여예산팀장 외 담당공무원 2명
(지원센터) 팀장 2명

위 원	발 언 내 용
김주억 총위원장	○ 회의 시작에 앞서 7월 29일 7월 29일날 인사 이동이 있었음. 시 예산담당관실에 신입 예산 담당관님,, 참여예산팀장님, 주무관님이 바뀌셔서 여기 계신 분과장님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 예산담당관, 참여예산팀장, 주무관 2명 인사	
김주억 총위원장	○ 지금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건은 참여형 제안 사업 2차 심의 일정 그다음에 투표 등에 대한 향후 일정에 관한 안내 및 기타 의견 수렴입니다. ○ 참여예산팀장님 제안사업 2차 심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개요에 대한 설명임. 당초에 우리가 목표 안내 드린 게 240억 원인데 사업 규모는 제안 사업 내용이나 또는 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드린 바 있음. ○ 제안 사업 심사 기준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이 되고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하며, 행사성 사업이나 기타 부적정사업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드린 바 있음. 올해 연초에 운영 계획에 그렇게 안내드렸음. ○ 다음은 3쪽 그간 추진사항임. 분과위원회별로 7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68개 사업을 선정하셨고 그 자료를 갖고 있음. 두 번째로 이제 지속사업 선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각 사업부서로부터 7건을 접수받았고 또 그중에 대상 사업 형식적 요건을 갖춘 3건 1억 4300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사업으로 선정해서 별도로 안내한 바 있음.

위 원	발 언 내 용
	<p>그리고 이제 2차 사업 심의가 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까 말씀드린 68건과 지속 사업으로 3건, 71건임.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신 사업 중에 2년 이상 지속되어서 주민참여예산 당초 운영 계획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10건 그래서 2차 심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업은 61건 117억 6100만 원이 현재는 2차 심의 대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임. 각 분과별로 사업 건수나 사업 예산액 등은 참고하시면 되겠음. ○ 그 다음 5쪽부터 8쪽까지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하셔야 될 대상 사업 등을 표기에서 드렸음.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말씀해 주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 ○ 그리고 참고로 이 61건에 대한 사업 구체화 카드는 오늘 회의 종료 후에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참여예산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음.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산팀장님이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분과장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없으신지.
임종엽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속적인 사업과 계속적인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설명 바람.
유선평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적인 사업은 중단 없이 2년 3년 지나가는 사업을 저희들은 계속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음. 지속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대상에서 제외된 거는 2년을 하고 나서 3년 차는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당초에 안내드린 걸로 알고 있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히 난해함.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여예산의 부적정 사업 중에 하나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부적정 사업으로서 사업 선정이 안 됨. 제가 볼 때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시행하고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지 판단되어서 물어보는 것임.
유선평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 지금 회의 자료에 드린 사항은 2년 동안 하고 3년차 하는 사업을 지속 대상으로 판단을 해서 제외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종엽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겠음.

위 원	발 언 내 용
오병욱 분과위원장	○ 그래도 설명이 모자란 것 같음. 2년하고 또 한다면 그건 지속이라고 하셨는데 3년째 하는 사업은 지속으로 본다는 건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그러함.
오병욱 분과위원장	○ 계속은 그럼 무엇인지?
임종엽 분과위원장	○ 2년 이상 사업임.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당초 운영계획에 지속 사업은 두 번까지는 가능함.. 2022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2023년도에 다시 하는 건 인정이 되는 것이고, 3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은 안 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은 조례상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오병욱 분과위원장	○ 2년까지는 해 주되 3년째는 안 된다는 얘기인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그러함.
오병욱 분과위원장	○ 3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은 참여예산사업으로 안 된다는 것인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그러함.
김주익 총위원장	○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음. 지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이다라는 결 판단하는 것은 검토하는 부서가 검토하는지? ○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과위원장들이 각 분과 회의를 할 때 이 사업 한 번 더 하자 좋은 것 같다. 모니터링도 해보고 하니까 좋으니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원안 가결을 올렸는데 아니면 수정가결을 올렸는데 부서가 1차 검토할 때 이거는 지속 사업이다. 아니면 이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제안사업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주무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의견을 주실 수는 있는데 예산 편성 실무심사 과정이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의견을 주시더라도 그런 사업은 조례상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7건을 접수받았는데 그중에 3건은 2022년도에 시작됐고 나머지 4건은 2년 이상 2년이 지나서 3년 차까지 들어가는 사업은 대상에서

위 원	발 언 내 용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김주억 총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3페이지에 있는 지속사업 이거는 기존에 저희 4월 말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로 받았던 참여형 제안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인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그러함.
이배원 분과위원장	○ 제가 볼 때 한 해의 단년도 사업인데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진행이 안 되고 일반 사업으로 넘어감. 계속적으로 하면 일반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돼서 일반 사업으로 효과성이나 이런 게 다 검증이 됐다면 일반 예산으로 요구는 할 수 있음.
이배원 분과위원장	<p>○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 심의 대상 사업 목록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열띤 열정을 가지고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그 심사 숙고해서 선정이 됐음.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면 지금 전부 다 우리 정채성들이 센터나 시 부서나 위원회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됨. 정채성이 혼란이 음.</p> <p>○ 그러다 보면 원만하게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전달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각 위원회마다 다른 건 있겠지만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과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당연히 개선이 돼야 할 점이 있고 우리 시스템의 분과위원장이 이 시스템에서 위원회별로 목소리 전달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위원회에서 각 분과의 어려운 점을 잘 수집해서 정리해서 여기서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주고 그런 것이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에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함.</p> <p>○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분과위원장 시스템에서 자주 좀 힘드셔도 그런 점들을 소통을 해서 우리 분과위원들이 좀 더 보람 있게 잘 흘러가길 바람.</p> <p>○ 위원들이 충분히 제안자들에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임, 충분히 서로가 요구하고 어떤 대화가 진접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임.</p>

위 원	발 언 내 용
<p>김주익 총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배원 분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zoom회의가 많았고 작년에는 제가 분과장이 아니었어서 잘 모르겠지만 분과장 회의를 잘 할 수가 없었음. 올해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래서 오늘에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공식적인 분과장 회의는 3차가 맞는데 담당 주무관은 참여예산팀에서 소집을 안 했기 때문에 7월에 했던 긴급 회의는 회의한 내용은 같음하지만, 공식적으로는 2차다 했는데 사실 이런것들도 2차다 3차다 중요한건 아니지만 분과장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느냐는 애기인데 ○ 이배원 분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쉬운 점은 각 분과 12개 분과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됨. 왜냐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좀 자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해야 함. ○ 제가 기획재정분과위원장 하고 있지만 다른 분과장님들이 제안사업 150%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음. ○ 7월 12일날 긴급회의에서 150%심사를 8월말까지 하자라고 했을 때 기획재정분과도 사실은 부서 주무관님들이 참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없었음. 시간이 안 맞았음. ○ 기획재정분과위원들끼리 스터디해서 이 사업은 가자, 안 가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참여예산팀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니까 온라인 주민투표가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앞에 130%심사를 할 텐데 130% 심사때에는 부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과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그 안이 어떤건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함. ○ 그거 없이 가면 우리끼리 하고 마는 것임.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원안 반영됐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진행할 건지 구체화 관리카드에 설명을 해주셔야 하며, 자료만 넘겨주고 분과장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음. 참여예산팀장님께서 필히 좀 숙지하셨으면 함. 9월 23일이면 오늘이 9월 2일인데 20일밖에 안 남았고 추석 연휴도 포함되어 있음. 사실상 보름이 채 안 됨. ○ 보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12개 분과가 130% 실링 관련해서 분과회의를 하려면 또 바쁨. 이 곳 회의실을 예약하기 바쁜 것 뿐만 아니라, 제가 150% 심사할 때도 여기 말고

위 원	발 언 내 용
	<p>다른 회의실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7월 29일날 인사 전보가 되다 보니 그게 또 안 됐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산팀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분과들이 특정한 날이 겹치면 장소를 따로 배정해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해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분과회의할 때는 담당부서의 주무관들이 배석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함. ○ 다른 분과위원장님 질의 있으신지?
손보경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지속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이 지속사업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았고,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 같고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 한 가지는 지속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속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보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계속비 사업은 그 사업은 끝내는 시기를 단년도 내에 끝내면 단년도 사업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이상 가는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아닌지? 두 번 세 번 한 것을 지속, 계속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업이 좋으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면 참여예산사업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지금 계속비 사업은 지속사업과 같이 보시는 것 같은데 단년도 사업이라는 것은 그 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원래 그런 것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면 단년도에 끝낼 수 있으면 그 다음 해에도 그 사업은 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비 사업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유선희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를 정정하겠음. 계속비 사업은 통상 재정에서 쓰는 용어는 한 5년 정도 지속되는 사업을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고, 지속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2년도에 제안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3년도 하겠다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함.
손보경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해 보니 좋은 사업이어서 계속할 수 있다고 하면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될 수 있는 거 아닌지?
유선희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 수는 있음.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운영계획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계획 15쪽에 보면 지속사업같은 경우는 필요 시 지속사업을 반영하는데, 부서에서 2년차 사업을 제출하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음. 아까 계속사업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올 초에 안내드린 것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추진하는 사업을

위 원	발 언 내 용
	<p>중장기 사업이라고 표현했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한 것은 정정하겠음.</p>
<p>임종엽 분과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참여예산에 부적정 사업에 명시된 규정이 있음. 국가사업, 국고 보조사업, 단년도에 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을 참여예산의 부적정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 예를 들면 해양항공분과에 4차 산업 드론 사업이 있음. 청소년과 시대에 맞는 사업이니 드론 교육장을 설치해줘서 학생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 올라왔음. 그런데 드론 사업장을 만드려면 부지 선정, 건축을 해야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지만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캔슬을 시킴.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과 정반대 이야기임. ○ 수기 해수욕장에 카약장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음. 그 사업을 1년 예산으로 썼는데, 반밖에 안 되었음. 1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무용지물이 됐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올라왔음. 1억을 더 보조해주면 완성이 될 것 같다고 함. 계속해서 3년 가는 사업이면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1년으로 될 줄 알고 해봤는데 반밖에 안 됨.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완성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더 투입해서 완성이 됐음. 그런데 판단할 때 2년 사업인지 3년 사업인지 전문가도 아닌데 알 수 없음. ○ 명시된 사업에 국가사업, 국고 보조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은 부적정 사업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야 맞다고 생각함. 근데 팀장님께서 말씀한대로 2년사업이 가능하다 3년차가 안 된다 라는 것은 이 규정에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드론 교육장 사업은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 캔슬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도 선정을 해야되는 것임.
<p>정현숙 분과부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과 말씀드립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있는데, 오늘 보니 2년 이상 지속사업으로 제외가 되었음. 사실 이게 통과된 줄 알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 사업이 지난 2년까지 했는데 올해까지 해야 인천 전역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2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라고 해서 열외가 된다고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음. 올해 나머지 부분 지자체에 다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상태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굉장히 필요한 것임.

위 원	발 언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건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
김주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제안 사업으로 심사 기준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고 되어있음. ○ 이 RFID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인천시 다 될 수 있는 양은 아님. 효과가 좋고 확대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모니터링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 그래서 부서에서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걸로 가면 좋겠으나 예산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쪽에 제안 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는 여기 계신 분과장님들이나 여기 위원장님들이 다 동의하면 되는 것임.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작년도에 저희 참여예산 사업 397건 485억 중에서 보면 특히나 스마트도시담당관 사업들은 사실은 이거 제안 사업이 아니었음. ○ 부서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예산을 타고 넘어 온 사업임. ○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함. 그래서 올해는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임.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을 굳이 주민 참여예산에서 할 필요는 없음. ○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전년도에 했던 것 중에 단년도 사업이기는 하나 효과라든지 기대 효과를 보니까 너무 좋고 확대 개편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면 해당 분과에서 원안 반영한다거나 이런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설사 이게 단년도 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런 기대 효과가 있으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음.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 1차 심사 때 미반영된 제안 사업이 있음. 그러면 130% 2차 심사 때는 수정반영 할 수 없는지?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1차에서 필터링 돼서 2차로 넘어갔으면 2차로 넘어간 사업 우선 위주로 판단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함.
김주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150% 심사를 할 때 관련 부서에 주무관들이 다 참석을 안 하셨음. 어떻게 보면 다른 분과는 모르겠지만 기획재정분과는 그러함.

위 원	발 언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끼리는 다 원안 반영이다 해서 관련 부서로 다 넘겼는데 부서에서의 얘기는 미반영 비예산 사업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미반영이면 왜 미반영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사업과 안 맞다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를 설명해서 분과위원들 다 설득을 해서 해야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음. 그리고 7월 29일 날 인사 이동이 있었음. 그래서 제가 앞전에 전임 참여예산팀장님 때 2차 분과장회의든 3차 분과장회의할 때 우리 기획재정분과에서 미반영된 안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다 말씀드렸음.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이번 주 전화 드렸음. ○ 근데 하신 말씀이 전산 시스템에 예산 등록을 다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답변을 받았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아시다시피 1차 심사 때 보시면 표에 보시면 12개 분과 예산이 117억 6천만 원이에요. 작년 기준 480억 대비했을 때 아니 480억 필요 없고 내년도에 사업 규모 240억까지 딱 50% 수준임. 안건을 보면 61건임.. 2022년도에 편성된 안건이 497건임. ○ 이거 대비 15% 수준인데 참여예산팀장님이 아니라 인천시청한테 얘기를 하고 싶음. ○ 작년 같은 경우는 안건이 비대면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았음. 부서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 가면서 올해는 다 안 된다고 다 못한다고 함. 왜 그런 건지? 민선 8기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서의 담당자들이 다 전근을 가거나 승진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함. 시에서 240억 규모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작 부서에서는 미반영이다, 비예산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나온 게 117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차 심사 때 미반영됐던 안건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분과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예산이 150% 실량이 안 되니 비예산 사업 중에서 아니면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130% 심사 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 편성 해보자 이게 사실은 여기 계신 12개 분과장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인데 전산 입력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게 첫 번째 문제임. ○ 두 번째, 150% 1차 심사 통과한 것 중에서 예산 증액될 수 있는 거 사업들마다 분명히 있음. 왜냐하면 주민 투표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안 사업 실행 130% 범위 내에 심사해서 주민 투표를

위 원	발 언 내 용
	<p>때 100%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실링 100%이하는 무조건 10% 사업이 제외됨.</p> <p>○ 1개 분과당 23억정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쪽 들어보니까 23억을 넘는 분과가 단 하나도 없음.</p>
정현숙 분과부위원장	<p>○ 그럼 주민투표가 필요없지 않은지?</p>
김주익 총위원장	<p>○ 그리함. 투표를 왜 하는지.</p>
임종엽 위원	<p>○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150% 선정하는 사업인데 참여예산이 총 240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분과당 할 수 있는 사업이 20억 범위 내에서 하라는 뜻임.</p> <p>그런데 150%라는 것은 뭐냐면 30억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임. 2차 분과회의를 하면서 130% 선정을 26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임. 그렇게 하다보면 A분과에서는 10억도 안되고 B분과는 23억, C분과는 18억 올라온다 하면 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조정 회의를 함. 이렇게 하는 선정 작업인데 지금은 이걸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다 잘라서 보니까 150% 130% 할게 없이 그냥 100% 이하임.</p> <p>○ 그러면 150% 130% 조정할 이유도 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투표할 이유도 없음. 이미 선정이 되어서 끝났음. 240억 중에서 117억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음. 여기서 무슨 130%가 나오고 총회를 해서 투표를 하겠음. 이미 다 예산 범위 내에서 통과된 상황인데.</p> <p>그러니 검토부서에서 이걸 사업이 참여예산 부적정 사업 명시된 사업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함.</p> <p>○ 위원장님들께서 다 고민을 하셨겠지만 검토 부서에서 나온 그 결과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여기서 결부시키는데 상당히 힘들 때가 있음.</p> <p>○ 240억 참여예산 중에서 117억밖에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뭘 골라내고 할 수 있는 게 없음. 예산이 초과된 분과가 있으면 남은 분과를 이관해서 그 이후에 조정토의를 해야되는데 이 사업으로서는 할 게 없음.</p>
이배원 분과위원장	<p>○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 하느라고 애쓰심.</p> <p>정책토론회에서 전문위원들이나 패널들이나 시민 다수 의견이나 각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심.</p> <p>시의원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댓글 제안서를 제출하게끔 제도를</p>

위 원	발 언 내 용
	<p>너무 어렵게 한다든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홍보를 넓게 해서 인천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참여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같은 사업인데 제안자만 바뀌어서 계속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신경을 안 쓰면 모르는 부분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모니터링이 안되는데 어떻게 현장 모니터링을 나가나 싶음. 현장 모니터링 나가기 전에 사전 모니터링, 제안자를 만날 수가 없음. 제안자를 만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 없이 현장 모니터링을 나가면 맞게끔 진행을 하는 건지 모니터링이 안 됨. 이런 점들이 360도 개선되어야 함.</p>
오병욱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의하는 주제, 목적에 대해서 우선 잘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음. ○ 참여예산이 240억인데 왜 117억밖에 못 쓰는데 왜 우리가 회의를 해야되냐 이것을 따져봐야 함. 117억 다 가려냈으면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오늘 여기 우리를 불러 앉혀서 이걸 하게 만드느냐 우선 따져봐야 함. 이 사업을 앞으로 바쁘게 9월 5일부터 2차 회의를 해야 하는데 모이기도 힘든데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의를 마감했으면 좋을 것 같음.
김주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130% 심사하는 일정은 여기 계신 분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 날짜보다도 늦춰질 수 있다는 걸 참여예산팀장님께서 참고바람. 때에 따라서는 지금 130%범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240억 규모 자체가 안 되어버리면 주민투표 할 필요가 없음. ○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130%심사를 분과별로 해야 하는데 미반영된 제안사업을 한 번 더 봐주시고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은 참석하셔서 그게 왜 미반영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람. ○ 원안 반영은 부서의 주무관들하고 얘기할 건 별로 없고, 배정된 예산이 적으니 미반영된 사업들 위주로 130% 봐주시고, RFID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지 2년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한번 더 태우자라고 얘기를 해서 받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음. ○ 이미 여기에서 117억에 대해서 61건은 다 하겠다라는 거고, 구체화 관리카드도 다 뒀을 것임. 여기서 예산을 더 늘려봐야 의미는 없음.

위 원	발 언 내 용
	<p>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이대로 두고 각 분과별로 150%심사 때 미반영되어서 탈락한 것들을 가지고 검토하겠음. 130% 실링에 맞게끔 그 사업들을 살려서 하겠다는 말씀임. 부서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답변을 주시면 되고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각 분과위원님들한테 설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음. 분과위원장님들 의견 어떠신지?</p>
<p>장선자 분과위원장</p>	<p>○ 선정된 사업중에서 2억 2900만원인데 저희는 선정된 사업 중에서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130%에서 증액을 요청할 생각임.</p>
<p>김주익 총위원장</p>	<p>○ 어디까지나 제 제안이고, 기획재정분과는 3건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안사업들이 다 전임 참여예산팀장님 계실 때 다 미반영이 됐음. ○ 기획재정분과에서 못 넘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나온 제안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개 분과 모든 위원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든 뭐 하든 하겠다는 말씀드림. 150% 제안사업 선정된 것 중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증액을 하시고, ○ 미반영된 사업이 아쉽다 하는 분과에서는 미반영된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130% 실링에 포함시켜주시면 될 것 같음.</p>
<p>임종엽 분과위원장</p>	<p>○ 위원장님,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분과는 정책토론회 때 이 사업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 공표를 했음. 주민들은 6건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면 담당부서에서도 시청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음. 올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그 부분들도 있을 것임.</p>
<p>오병욱 분과위원장</p>	<p>○ 예산담당관님 참석하셨으니, 여기 보면 다 50%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분과회의를 해서 증액을 해도 괜찮은지만 대답을 하시면 됨. 우리 마음대로 사업 선정을 해서 각 분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더 넣어도 되는지 대답해주셔야 그 다음 회의를 해야하는지 결정할 수 있음.</p>
<p>김주익 총위원장</p>	<p>○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 증액이 되든 미반영 사업을 검토하든 12개 분과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분과는 미반영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살리겠다는 얘기고 어느 분과는 충분하면 안</p>

위 원	발 언 내 용
	<p>하셔도 됨. 강제성은 아님. 예산담당관님 말씀바람.</p>
<p>예산담당관 시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각각 시민, 위원, 공무원, 의원 등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것 같음. 공무원이 예산을 세울 때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함. 예산 요청이 200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100밖에 없으면, 공무원이 계획한 사업도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100으로 의회에 올림. 의회에서 또 시민 의견 등 조정이 됨.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해서 들어온 제도임. ○ 2018년도에 14억에서 19년도에 중앙정부가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자는 기조 등에 의해 199억으로 규모가 커짐. 실링이라는 것을 둔 이유는 복지, 해양항만, 환경, 경제 등 골고루 성장해야되고 골고루 참여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실링을 둔 것이고, 규모도 200억, 300억 올라갔던 것이고 규모액이 커야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규모액이 늘어난 것임. ○ 말씀하시는 150% 130% 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이고,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하면 200%될 수 있고 한 것임. 어느 기수의 위원장님이 본인이 중요하다고 세우신 사업이 있었음. 별도로 다른 분과위원장님들께서 요청하셔서 모여서 의견을 내자고 해서 회의를 적이 있었음. ○ 그래서 이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서 다 중요하다고 올리셨는데 100%인정해드리고 싶지만, 다른 분과에서 볼 때에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임.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말할 수 있음. ○ 지금은 이제 어차피 미달되니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넘쳐서 깎아야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셔야 하고, ○ 부서에 넘어오고 의회로 넘어갔을 때 100% 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데 그동안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있었으니까 아마 해주셨을 것임. ○ 의원님들께서는 시의원으로 뽑아 놓고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억씩이나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심.

위 원	발 언 내 용
김주억 총위원장	○ 500억이 개인한테는 크지만, 인천시 예산에서는 얼마나 차지할지? 그 발언은 정정해주셔야할 것 같음. 왜냐하면 시의원이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고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내실 수 있고 아예 원안 폐기될 수도 있을 것임. 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500억씩이나 라는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음.
예산담당관 시현정	○ 공무원이 제안하는 사업도 주민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제안하지는 않음.
이배원 분과위원장	○ 핵심만 얘기하시길 바람.
예산담당관 시현정	○ 150% 130% 얘기하셨는데, 150%나온 분과가 없기 때문에 금액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오병욱 분과위원장	○ 50%도 안됨. 전체를 보니까 대부분 50% 이하임. 그래서 회의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임.
정현숙 분과부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면, 240억이 참여예산 분과에 배분되는 금액이라고 알고 1,2,3차 토의를 다 거치고 온예산스터디도 하고 해서 150%부터 시작해서 130%실링까지 내려왔음. 거의 맞춰서 환경분과같은 경우는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에 500억 다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큰 사업은 빼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 23억이 나왔었음. 그런데 와서 보니 117억 정도만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표해주시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주민투표도 필요없고 이대로 그냥 결정해서 보도자료 내보내는 게 끝인 것임. ○ 6월 7월까지 240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8월 9월 되니까 예산이 갑자기 240억에서 예산이 너무 줄어들어서 이제부터는 투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17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설명하기도 모호함.

위 원	발 언 내 용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음. 기존 여기 나와있는 사업 중에 예산 증액, 미반영된 사업중에서 수정반영으로 예산 편성을 되도록 안된다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람. ○ 여기 있는 117억에 있는 분과들 중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과, 선정이 안 된 미반영된 제안사업을 분과마다 검토를 해 보니 예산 편성해서 수정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람.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억이라고 나온 것은 1차 각 분과위원회에서 필터링을 해서 부서에서 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법적 타당성도 검토했고, 여기 드린 자료 외에 다른 사업을 검토하시거나 하는 부분은 증액 논의해서 증액하신다 하더라도 효과성은 담보할 수 없음. 240억 200억 60억을 쌓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님. 240억을 채우려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님. 240억이 340억도 될 수 있고 효과성이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117억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도 아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부서에서 1차 검토한 자료고 예산실에서 대략적으로 한 번 검토한 자료인데 다른 사업하고의 중복성 등을 검토해야 함.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투표 필요없고 3차 분과장 회의 필요없음. 위원회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음. 원래는 부서에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안)이 최종적으로 와야하는 것이고 줄어든다면 시의회에서 가능하며, 그것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쪽으로 12개 분과에게 다 피드백 해주셔야 함. 이 사업은 탈락했고, 수정됐다라는 설명이 작년, 제작년에 없었음. 올해에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240억이 확정이 아니라 23년도 계획이고 단지 방향성임. 참여형 예산사업인데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되게 많이 축소하신 것임. ○ 재정컨설팅을 예산실에서 했는데 거기서 의견을 교환하는게 맞는 건데 130%심사 다해서 올려도 어디가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인정 못할 것 같음.
이배원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억이 확보된 예산인지?

위 원	발 언 내 용
예산담당관 시현정	○ 규모를 500억으로 하겠다는 것임.
이배원 분과위원장	○ 500억이고 분과에서 20억 정도로 데이터를 냈는데, 전체 금액에서 부족하게 제안된 분과는 좀 더 많이 제안된 분과에다가 주고 이렇게 하기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정현숙 분과부위원장	○ 그러면 내년부터 굳이 참여예산위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시에 있는 정책대로 하시고 금액도 저희가 다룰 수 있는게 없고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뒤바뀐 모양새로 보여지는데 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하고 모집할 필요도 없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것 같음.
오병욱 분과위원장	○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는 우리대로 마감할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은지. 시장님을 만나다던가
김주억 총위원장	○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민선8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7월 1일부터인데 유관기관 면담하시고 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예산위원회쪽 12개 분과장님들에 대한 면담 요청은 통보받은 게 없음. 팀장님 말씀하신것도 117억 확정 아니다 240억 확정 아니다 줄어들 수도 있다 하시는데 저는 내년 2월 28일 끝나면 3년이 끝나기 때문에 더하고 싶어도 못함. ○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작년처럼 가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240억 예산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런걸 해 보니 너무 좋아서 또 시민들이 해 주셔서 관계 기관 주무관들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많이 관심 가져달라고 투표나 총회가 잔치가 되어야하는데 오늘 느낀 감정은 오늘로써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남. ○ 제가 오늘 여기 1시 반에 왔는데, 12개 분과장님들과 한달만에 본 건데 긴급회의를 카톡에다 올려도 전임 팀장님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런 태도셨음. ○ 일단 시장님 면담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람.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민간 위원회 중에서 인천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0명이면 상당히 큰 규모임.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취임하신지 2달 다 되어갔는데도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인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임. 인터뷰할 수도 있음. 예산도 줄고

위 원	발 언 내 용
	<p>담당공무원도 4명에서 3명으로 줄고 예산 규모가 똑같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산사업이 많아지면 행정적인 업무에 인력도 예산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너무 확대하신 것 같음. <p>답변을 주시기 바람. 언제까지 시장님께서 만날 수 있다라는 (안)을 주시고 그 후에 분과장 회의를 다시 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방향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는데 여기 앉아서 117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24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임.
<p>송용섭 분과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월 정도되면 한마당 총회를 하고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 8기 교체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 참여예산팀장님도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안 된 것으로 보임. ○ 그러다 보니 예산적인 문제도 준비성 없는 발언을 하신 것임. 도시녹지분과같은 경우도 27건 들어와서 줄이고 줄여서 4건으로 올렸는데 여기서 또 줄어들어버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의미가 없음. 오늘 예산담당관님, 참여예산팀장님 두 분이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준비가 안 된 발언을 하신 것 같음.
<p>예산담당관 시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스마트도시담당관이었는데 실국별 실령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할 생각으로 2019년에 제안을 했었음.
<p>김주억 총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에 인천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참여형 제안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않았고, 성과를 보여야하다보니 작년 총위원장이 동의를 했을 것임.
<p>예산담당관 시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사업을 유용하게 잘 했었음.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었지만 그 사업을 했어야 했기에 요청을 드렸고 해주셨었는데,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정확히 하셨는지를 기획재정분과만 봐도 서두에 김주억 위원장님께서 올해 그런 사업은 다 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대로 검토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함.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했었음. ○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200명이나 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소홀히 하신 건 아니고 저희 부서가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7월 29일날 오면서 그날부터 추경에 들어감. 의회에 넘기느라 주민참여예산은 지금부터 신경을 쓰고 하게 되어서 아직까지 요청을 드리지 못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 팀 인원이 줄었다는 부분은 9월 23일날

위 원	발 언 내 용
	인원을 받기로 되어있음. 직원이 본인이 파견을 신청해서 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상황이고 주민참여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람.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8기동안 시정을 잘 다뤄주시길 바라고 시민으로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실제 일부 언론에서도 일부 협치형 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 기간에 편성되었다라는 뉘앙스가 마치 7기 박남춘 시장의 행적을 다 지운거으로 보여주다 보니 그런 것임. ○ 현재는 이거는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음. 여기 계신 분과장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거수를 해 주시면 유정복 시장님을 만나러 오고 나서 다음 분과위원장 회의(4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람. 전임 팀장님께서 긴급회의를 2차 분과장회의로 같음한다고 함.) ○ 추석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4차 분과위원장 회의를 잡아주시기 바람. 그 때 시장님 마인드가 어떠신지 분과위원장들의 마음을 수용하시고 관련 팀들과 협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시면 그 때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 보겠음. ○ 분과장님들 의견 주시기 바람. 찬성하시면 거수 부탁드립니다. ○ 유정복 시장님 뵙고 2023년 2024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면담 끝나고 바로 4차 분과장 회의 해도 됨.
정현숙 분과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군구를 돌아다니면서 주민 제안사업 투표를 많이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갖고 거창하게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을 가서 찍어왔는데 시민들은 참여도도 높고 기대감도 큼. ○ 시민 한마당 축제가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봄.
손보경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이후로 진행되는 건 잠시 멈추고 시장님을 면담한 후에 이 일정이 소화되는 것인지? 예산 편성 기간이 있는 거여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않고 면담은 면담대로 가면서 일정은 일정대로 가는 것이라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음.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민선8기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당일날 4차 분과장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임.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인 기간이 시장님 일정 잡는 것부터 언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움. 예산 편성 과정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위 원	발 언 내 용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딜레이 되거나 하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게 됨.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15일날 2차 분과장 회의하겠다고 했었는데 하루만에 취소가 되었음. 업무보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미뤄졌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랑 분과장 회의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아무 얘기가 없었음. 참여예산팀에 물어봐도 내려온 게 없다는 말이었음. 분과장님 2차 회의하는 게 그렇게 시에서 정말 엄청나게 다 결재라인을 밟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음. ○ 7월 12일날 긴급회의를 제가 그래서 제안 했었던 건데 그 때 안 했으면 지금 여기 있는 150% 61건 117억이라는 이 금액에 대한 사업도 없었음. ○ 지금 참여예산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정이 다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일정을 시에서 다 미루었음. 다 미루고 이거밖에 없으니 내일 모레니까 오늘까지 과제를 다 내라는 것과 똑같음.
유선필 참여예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도 와서 놀랐음. 이렇게 촉박하게 돌아가는지는 몰랐음.
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사업은 분과에서 통과한 것이고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사업은 3년째 되어서 제외되었는데 위원장님은 제외가 됐어도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먼저 부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시장님 일정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지만 확답을 낼 수 없음.
임종엽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간색으로 표시된 제외된 사업을 왜 제외됐는지 들으라는 것인지? 그 분과에 해당되는 사안이지 다른 분과가 그 분과의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과에서 130%심사할 때 미반영된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 부서에서 주무관이 미반영할 수 밖에 없는지 타당성을 설명을 해야 넘어갈수 있다는 말씀임.
임종엽 분과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이 깎일 것이라는 말씀은 아님. 이미 이 사업들은 관리카드가 다 작성이 된 사업임. 이 사업들을 시의회로 올림. 시의회에서 자르는 거지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를 수가 없음. ○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의장을 만났음. 참여예산사업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니 자르지 마시고 100% 통과해달라고 말씀드림. ○ 그 결과는 늦게 나오는데 그 결과를 문서 등으로 보내서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하는데 그 절차도 빠졌음. 작년보다 이

위 원	발 언 내 용
	예산이 더 적게 나왔는데 시의회가 보면 99% 받아들일 것 같은데 지금 삭감될 수 있다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정복 시장님 면담이 최우선이고 온라인 투표나 총회 일정은 일단 홀딩(멈추는 것)이고 시장님이 시정이 바빠서 올해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참석하셔야 함. ○ 부시장님이 참석하신다고하면 12개 분과장님들 얘기하셔서 다 끝나고 나면 당일 4차 분과장 회의를 하면서 향후 일정 어떻게 할 것인지 잡아야 될 것 같음.
참여예산팀 전유진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회의자료 보시면 2차 심의 대상사업 목록이 나와 있는데 61건이 되기 전 68건이었을 때 각 분과에서 1차 심의결과라고 해서 보내주신 결과가 68건이어서 금액이 적어진 것임.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2년이상 지속 제외 이거는 1차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통과된 사업을 받아서 예산실에서 재정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2년 이상 지속했기 때문에 제외한 것임.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제외를 하는 게 아니고 재정컨설팅 (안)을 분과에게 줘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분과위원장 회의를 할 때 아예 빼고 올라왔음. 재정컨설팅은 단지 컨설팅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사항이지 강제 권고사항이 아님.
정현숙 분과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실임.
김주억 총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말 잘하고 싶다는 것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하고 싶어도 잘 못했는데 올해는 잘하고 싶었는데 민선 7기 8기 바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음. 흐름대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멈추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날 긴급회의 안전을 인천주민참여예산 조례에서 찾아서 단독방에 올릴 때에도 참여예산팀장님은 아무 말도 안함. 관심이 적다는 얘기임.
시현정 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랑 너무 많이 상황이 바뀌었고 바뀐 것을 숙지하지못하고 온 거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일정이 이렇게 늦어진 거는 선거 때문에 의회도 늦어지고 모든 게 늦어져서 이렇게 촉박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림. 저희가 더 검토하고 말씀하신거 더 챙겨보겠음. 일정 잡겠음.

위 원	발 언 내 용
김주억 총위원장	○ 2차 분과장 회의는 시장님 안 되시면 부시장님 만나 뵙고 4차 분과장 회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